

우발살인 '매맞는 아내' 구명운동

14년여 동안 남편에게 온갖 수모와 폭행을 당해오다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교사의 사연이 25일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관심을 끌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인 이형자(37·여·전 부산노여중 교사)씨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동료교사 1백93명과 같은 마을 주민 1백8명, 불교신도 1백50명 등 모두 5백여명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이씨의 불행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씨의 불행은 지난 2월21일 오후 8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술에 만취한 남편 황아무개(45)씨가 자신을 발가벗기고 끌어안던 뒤 흥기를 목에 대고 위협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온갖 수모와 폭행을 가하자 겁에 질려 남편을 밀어버린 것이 화근이 됐다. 남편은 그 순간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흥기

만취한 남편의 확대 못이겨 밀친게 화근 무기구형 부산 이형자씨...5백여명 탄원

에 목을 찔렀다. 이씨는 그때 남편이 칼을 목에서 빼 자신을 향해 기어오자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너무나 무서워 칼을 빼앗아 몇차례 찔렀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79년 1월6일 황씨와 결혼했으나 7개월 뒤부터 외박과 술주정을 일삼는 남편의 욕설과 구타에 시달려야 했다. 이씨는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온몸을 구타당했으며, "나는 앞으로 남편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충성선서'를 강요당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선박용품점을 경영하던 남편은 결혼 4년이 지나면서 집으로 경리 여직원을 끌어들이기 시작

했고 이씨가 이에 항의하면 술을 마시면서 머리채를 흔들며 고 술이 깔 때까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행을 가해 몇 때문에 목욕탕에도 제대로 갈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남편 황씨는 이씨가 친정으로 피신하면 그때마다 칼을 들고 찾아와 "모두 죽인다"며 행패를 부려 홀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앓아눕는 등 친정식구들이 당한 고통도 극에 이르렀다고 한다.

동료교사들은 탄원서에서 "상상도 못할 자신의 불행 속에서도 항상 양보하는 인간성을 보여 왔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제자들에게 매도 한번 들지 않는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북 경주군 두메산골에서 큰팔로 태어나 상이용사인 아버지와 네 동생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일념으로 주경야독 끝에 부산의 2대학 국문과 야간부를 졸업해 꿈에도 그리던 교사가 됐으나 남편의 폭력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두 자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먼 옛날부터 맺어온 우리 가족의 인연이 지금은 엄마의 죄업으로 산산조각났지만 뼈아픈 고통과 슬픔을 참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 좋은 열매를 맺도록 약속하자"며 공부하는 방법을 일일이 적어보내기도 했다.

혹시라도 두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자신의 문제가 여론화하는 것을 극구 반대해온 이씨를 단순히 살인범으로 몰아 단죄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부산/이수운 기자

93.
6.20